"광주첨단산단 입주기업 디지털·저탄소화 가속화"

산단공, 스마트그린 3차년도 사업
스마트 물류플랫폼 등 인프라 확대
지난해 수해방지시스템 등 큰 성과
복지·편의 개선 청년인재 유입 촉진

광주첨단 스마트그린산단 조성을 위한 3차년도 사업이 본격화된다. 한국산업단지공단 광주지역본부는 지역 산업단지를 디지털화, 저탄소화, 에너지 자립화로 경쟁력있고 환경친화적인 제조공간으로 전환하기 위해 마련된 광주첨단 스마트그린산단 조성 3차년도(2023년) 사업을 추진한다고 22일 밝혔다.

산단공 광주지역본부는 올해 사업을 통해 디지털·일자리·산업안전·환경 등 다양한 분야에서 그동안 구축해온 인프라를 완성시켜 온전한 스마트그린산단으로써의 모습을 갖춘다는 계획이다.

광주첨단산단을 비롯한 전국 15개 주요 산업단지에서 추진 중인 스마트그린산단 조성사업은 2050년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그린전환'과 제4차 산업혁명에 발맞춰 AI(인공지능)과 IoT(사물인터넷) 등을 접목한 '디지털 혁신'을 산업 현장에 적용하는 과정이다.

산단공 광주지역본부는 광주첨단 스마트그린산단 3차년도 사업 추진을 위해 이달 초부터 세부 촉진사업별 수행기관과 연차 협약을 체결하는 등 사업에 착수했다.

지난 1·2차년에는 전담기관인 한국산업단지공단 광주지역본부 청사 내 통합관제실을 설치하고 전산인프라에 대한 고도화를 완료했으며 IoT수해방지 시스템과 방범·교통·화재감시를 위한 지능형 폐쇄회로(CC)TV 등의 설치로 지역사회에서 눈길을 끌기도 했다.

특히 IoT 수해방지 시스템은 하수관 역류로 인한 수위 상승을 실시간으로 감지할수 있도록 해 수해가 발생하면 큰 피해를 입었던 산업단지 내 제조시설과 기업에 호응을 얻었다.

이와 함께 무료 와이파이(Wi-Fi) 인프라 구축 및 스마트정류장쉘터 3곳, 스마트보안등 57개, 스마트주차장 2개소를 설치하는 등 근로자의 편의를 위한 환경을 세심하게 조성하고 있다는 평가다.

호남대 컨소시엄을 통한 스마트제조 고급인력양성에서는 산업단지 디지털 전환 등 제조혁신을 주도할 인재 육성을 위한 스마트 제조 분야 교육과정을 운용해 지난해 말까지 재직자 1033명, 구직자 710명 등 온오프라인 85개 교육과정 운영을 통한 1799명의 교육생을 배출해내기도 했다.

3차년도인 올해 추진되는 중점사업은 △통합관제센터 구축(133억원) △산단형 지능분산에너지 기업공동연구활용센터 구축(217억원) △스마트 물류플랫폼 구축(65억원) 등으로 먼저 기존 구축된 통합관제센터의 경우 화재 대응 플랫폼이 추가된다.

기존 AI 데이터를 활용한 침수 방지와 지능형 CCTV를 활용한 감시센서가 구축됐다면, 올해는 IoT 장비를 활용해 화재 정보들을 실시간으로 확인·대응할 수 있는 화재 대응 플랫폼과 배수로 알림판 등을 추가로 구축할 예정이다.

또 분산에너지 산업생태계 육성기반 조성을 위한 기업공동연구센터의 경우 올해 센터 설계와 착공에 돌입할 계획이다.

지난해까지 주관기관 선정 및 입주기업 수요조사를 통해 설계한 스마트 물류플랫폼 서비스모델의 경우 세부 설계를 진행 중이며 올해 하반기에는 산단 맞춤형 스마트 물류플랫폼 및 공동·공유 물류창고를 시범적으로 운영할 방침이다.

이외에도 산단공 광주지역본부는 전국 스마트그린산단을 대상으로 공모절차가 진행 중인 △공정혁신 시뮬레이션 구축사업(3년, 국비 180억원) △에너지 자급자족 인프라 구축사업(3년, 국비 200억원)에 대한 공모 신청을 통해 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황상현 산단공 광주지역본부장은 "광주첨단 스마트그린산단 촉진사업의 체계적인 관리·운영을 통해 입주기업의 디지털화 및 에너지 절감을 지원하고 관련 인프라를 지속 확대하는 등 산업단지 디지털·저탄소화를 가속화 하겠다"고 밝혔다.

곽지혜 기자 jihye.kwak@jnilbo.com

삼성전자, '에너지 세이빙 특별전' 진행

9개 품목 에너지절감 가전 혜택
냉장고·AI 세탁기 등 30개 모델

삼성전자가 고효율 에너지 절감 가전과 환경을 생각하는 가전을 특별한 혜택으로 구매할 수 있는 '삼성전자 에너지 세이빙 특별전'을 진행한다.(사진)

냉장고·김치냉장고, 그랑데 AI 세탁기·건조기, 무풍에어컨, 에어드레서 등 다양한 비스포크 가전과 QLED TV 등 총 9개 품목, 30개 모델을 대상으로 진행하는 이번 특별전은 오는 5월31일까지 전국 온오프라인 매장에서 동시에 진행된다.

2개 이상의 품목을 동시에 구매하면 제품당 20만원 상당의 혜택을, 에어컨의 경우 50만원 상당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삼성전자는 앞서 기존 에너지 소비 효율 1등급 제품보다 에너지 효율을 더욱 높인 신제품들을 출시한 바 있다. 비스포크 그랑데 AI 세탁기 25㎏과 비스포크 무풍 에어컨 갤러리는 에너지 소비효율 1등급 최저 기준보다 각각 20%, 10% 소비전력량이 더 낮다. 또 비스포크 그랑데 AI 세탁기에는 미세 플라스틱 배출량을 최대 60% 줄여주는 '미세플라스틱저감 코스'를 국내 최초로 적용하기도 했다.

삼성전자는 이번 행사와 함께 'AI 절약모드' 사용을 인증하거나 퀴즈 참여를 통해 소정의 상품을 제공하는 '스마트싱스 AI 절약모드' 체험 이벤트도 삼성닷컴에서 진행하고 우리 집 가전의 전력 소비량을 빠르고 간단하게 확인할 수 있는 '에너지 계산기' 서비스를 삼성닷컴에 선보인다.

에너지 계산기 서비스에서는 가전 품목, 출시연도, 에너지소비효율등급 등 현재 보유하고 있는 제품 정보를 입력하면 평균 소비전력량을 알 수 있다. **곽지혜 기자**

광주상의, 제1차 전자입찰 실무교육 개최

내달 4일… 매출증대 기여

광주상공회의소는 광주시와 공동으로 오는 4월4일 오후 2시 광주상의 3강의실에서 '2023년 제1차 전자입찰 실무교육'을 개최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교육은 전자입찰에 대한 활용 및 이해도 제고를 통해 경기침체로 수주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기업의 공공 및 민간 입찰에 대한 낙찰률을 높여 매출증대에 기여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내용은 △입찰의 개요 및 절차 △공고의 구성 및 입찰용어 △입찰의 계약방식 △신용평가 확인서 발급 △투찰금액 산정 및 적격심사 점수 산출 △낙찰 및 계약 유의사항 △입찰정보 서비스 이용방법 등이다.

교육은 전액 무료로 진행되며, 광주상공회의소 맞춤형 입찰정보 서비스 홈페이지(https://gjcci.bidpage.co.kr)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한편 광주상의는 지난 2010년부터 '중소기업 맞춤형 입찰정보 제공' 사업을 통해 6000여개 기업에 약 1조원 규모의 낙찰을 지원, 지역 중소기업 매출증대에 기여하고 있다. **곽지혜 기자**

소상공인 창업 지원공간 '혁신허브' 조성

광주전남중기청, 후보지 모집
유휴공간 활용 리모델링 지원

광주전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은 중소벤처기업부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협업으로 소상공인의 창업과 혁신을 지원하는 '소상공인 혁신허브' 신규설치 후보지역을 모집한다고 22일 밝혔다.

소상공인 혁신허브는 기존 예비 소상공인의 교육을 지원하는 신사업창업사관학교를 '교육+체험+운영'의 복합공간으로 개편해 예비 소상공인과 기존 소상공인들이 모두 해당 공간에서 일하고 생활하고 놀 수 있게 만들어진 직주락(職住樂)형 창업공간을 말한다.

소상공인 혁신허브에서는 교육 지원 여부와 관계없이 누구나 코워킹스페이스를 이용할 수 있으며 창업 아이디어를 가진 사람은 정기적으로 열리는 피칭대회를 통해 아이디어를 평가받고 창업상담·지도를 받을 수 있다.

또한 예비창업자들은 교육장에서 교육을 받고 보육공간을 지원받게 되는 등 준비된 창업도 할 수 있다.

중기부는 우체국이나 지자체 유휴공간 등을 활용해 소상공인 혁신허브를 구축, 예산낭비를 막음과 동시에 혁신허브를 지역 생활창업의 중심으로 만들어 유휴공간에 활력을 불어넣는 효과까지 잡는다는 전략이다.

현재 설치가 진행된 지역 등을 제외한 광주, 전남을 비롯한 12개 시도 광역자치단체를 대상으로 내달 7일까지 모집하며 공모를 통해 총 3개 이내의 후보지역이 선정된다.

신청 공간은 전용면적 600㎡(180평) 이상, 건물용도가 현재 근린생활시설이거나 즉시 근린생활시설로 변경이 가능해야 한다.

선정 시 리모델링, 필요물품 구매 등 혁신허브 공간 구축에 필요한 비용을 최대 10억원까지 지원하고, 소통의 장이 될 수 있는 다양한 문화 프로그램 및 단계별 창업 프로그램을 운영할 예정이다.

사업신청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광주전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 누리집(www.mss.go.kr) 및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누리집(www.semas.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신청은 공고문을 참고해 내달 7일 오후 4시까지 중소벤처기업부 및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으로 신청하면 된다.

곽지혜 기자

올 광주지역 아파트 공시가 8.75% 하락

전국 2005년 이후 최대 18.61%↓

지난해 전국에서 대체적으로 아파트값이 급락하면서 공시가가 크게 하락한 지역이 속출했다. 특히 세종과 인천 등의 낙폭이 역대급을 기록했다.

22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2023년 공동주택 공시가격(안)'에 따르면 올해 전국 공동주택 공시가격 변동률은 전년 대비 18.61% 하락했다. 이는 2005년 공동주택 공시가격 조사·산정 제도를 도입한 이후 가장 큰 하락폭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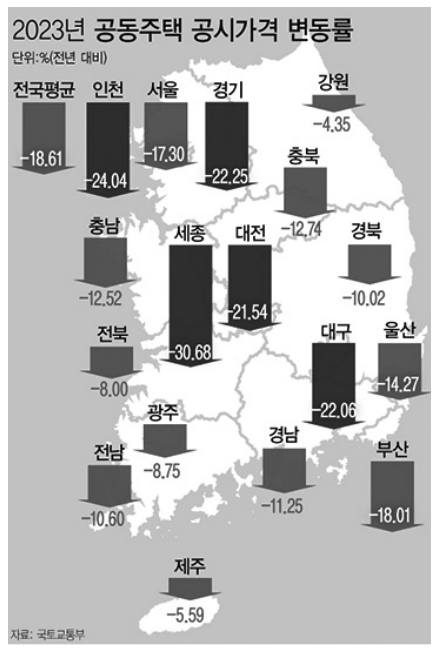
2014년부터 이어져오던 공시가 상승세가 10년 만에 내림세로 전환된 것이다. 전 정부에서 추진된 공시가 현실화 로드맵으로 크게 오른 2021년(19.5%), 2022년(17.20%)과 비교하면 격세지감이다. 또 역대 공시가가 2차례 하락했던 2009년(-4.6%), 2013년(-4.1%)에 비해서도 약 14%p가 더 내린 수치다.

지역별로 보면 모든 시·도의 공시가격이 하락한 가운데 세종(-30.68%), 인천(-24.04%), 경기(-22.25%), 대구(-22.06%) 순으로 하락률이 크게 나타났다.

전년도 변동률과 비교하면 2021년 전국 상승률 1위로 2022년 공시가 상승률이 컸던 인천(29.32%→-24.04%), 교통호재와 탈서울 효과로 급등했다가 급락한 경기(23.17%→-22.25%)에서 하락폭이 컸다.

서울도 17.30% 하락해 전년(14.22%)에 비해 변동폭이 컸다. 부산(18.19%→-18.01%), 대전(16.33%→-21.54%), 광주(12.38%→-8.75%), 울산(10.86%→-14.27%) 등 지방 광역시에서도 공시가가 대폭 하락했다.

전년도 유일하게 공시가가 내렸던 세종(-4.57%→-30.68%)은 전국에서 공시가가 가장 많이 내렸다.



올해 공시가격의 중위값은 1억6900만원으로 지난해 1억9200만원보다 2300만원 떨어졌다.

지역별로는 서울 3억6400만원, 세종 2억7100만원, 경기 2억2100만원 순으로 나타났다. **뉴시스**

'지역신문발전기금' 호남 유일 18년 연속 선정
인터넷 전남일보 www.jnilbo.com
모바일 전남일보 m.jnilbo.com